

## Press Release

[기획-디지털방송 한·일경쟁 현장을 가다] - 인터비2003 전시회 표정

2003. 11. 27 디지털 타임스

### 디지털방송장비 화두'고화질과 비선형편집'

올해 39회째를 맞은 국제방송기기전 '인터비2003(InterBee 2003)'의 화두는 단연 고화질(HD)과 비선형편집(NLE)이다.

오는 12월 지상파 디지털TV 개시를 앞두고, NHK는 물론 니혼TV, 아사히TV, TBS, 도쿄TV, 후지TV 등 지상파 6개 방송사가 전시장 한 가운데 연합부스를 열고 디지털TV 방송의 선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개막된 인터비2003의 전시장 규모는 지난해 8홀에서 올해 6개홀로 줄었지만, 참가기업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620개를 유지했다.

소니는 약 130평 규모의 가장 큰 부스를 확보, 카세트형 HD카메라와 블루레이 기술을 적용한 디스크형 HD카메라, 뉴스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최첨단 방송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HD캠 SR(Super Reality)'은 'HD캠'을 화질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제품으로, 한국의 일부 방송사와 납품계약을 한 상태라고 소니 측은 밝혔다.

소니 방송장비부문(B&P그룹)의 손동배 부장은 "일본에서 지상파 디지털TV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면서 NHK 등 방송사로부터 소니 카메라와 VCR 등 디지털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장비솔루션업체인 캐노푸스(Canopus)는 이번 전시회에서 HD영상편집시스템인 'HDWS-1000'을 전시했다. 이 제품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의 실시간 편집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SD와 HD급의 서로 다른 영상을 섞어서 편집할 수 있다.

방송용 서버업체인 톰슨글라스밸리는 'M-시리즈 iVDR'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각각 2개의 입·출력 채널을 적용해 동시에 2개 영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터치스크린을 채택,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400만엔대 가격에 이미 지난 6월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출시돼 지금까지 100대이상 판매됐으며, 일본시장에는 12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디지털 영상검색업체인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m 대표 김영섬)가 유일하게 독자 부스를 열고 카달로그·검색·편집 기능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아카이브 솔루션을 홍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일본시장은 디지털 데이터 방송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그러나 NHK 등 주요 방송사와 소니 등과 제휴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Press Contacts:**

황 지 인

Konan Technology Inc.

02 3489 1015

anna.hwang@konantech.com